

CS BEARING

씨에스베어링(주) 기자간담회

PRESS-KIT



기자간담회

Press Kit

2019.11.05

씨에스베어링

세계에서 인정받는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 기업 씨에스베어링, 글로벌 풍력 베어링 리더로 도약!

Public Relations

씨에스베어링 여태승 팀장

Tel : 055-589-9112

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Tel : 070-5068-6321

IR큐더스 김물결 책임

Tel : 070-5068-6320

IPO Summary

증권신고서 제출	2019.10.11	
수요예측	2019.11.04~05	
청약	2019.11.11~12	
상장(예정)	2019.11.21	
공모예정가	7,400~8,400원	
공모주식수	2,380,000주	
총 공모예정금액	176억 원~200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9,461,400주	
공모 후 주주구성	· 최대주주등	43.0%
	· 5% 이상 소유주주	31.1%
	· 공모주	21.6%
	· 우ரி사주조합	3.5%
	· 의무인수분	0.8%

Contents

1.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2p
2. 씨에스베어링 기업 소개	4p
3. Appendix	8p

PR Point

▶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 피치·요 베어링 전문 기업

- 2007년 풍력 베어링 전문 기업으로 설립(구 삼현엔지니어링)
- 직경 2.5m 이상, 평균 수명 20년 이상의 초대형·초정밀 풍력 베어링 개발 및 생산
 - 피치 베어링: 풍력 발전기의 날개, 블레이드를 지지하면서 회전시키는 부품
 - 요 베어링: 풍력 발전기의 타워 부분과 상부 나셀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부품
- 진입장벽 높고 보수적인 시장에서 주요 풍력 베어링 기업으로 성장
- 2018년 글로벌 풍력 타워 No.1 씨에스윈드 자회사로 편입

▶ 독보적 기술력과 전문 생산체제 기반 가격 경쟁력으로 지속 성장

- 글로벌 풍력 발전기 업체, GE의 핵심 파트너
 - 2011년 초도 납품 후 지속적 물량 확대로 현재 GE 내 M/S 40% 수준
 - 풍력 발전기 설계 단계부터 제품 공동 개발(세계적으로 극소수 사례)
- 풍력 베어링 전문 생산체제 구축: 생산성 혁신 통해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 확보
- 2018년 매출액 648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 달성('14~'18 매출액 CAGR 25.2%)
- 2019년 상반기 매출액 461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고객사 다변화 및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 도약

- 풍력 발전 산업, 신규 설치-리파워링 시장 동반 성장으로 지속 확대 전망
- 2019년 9월 말 기준 수주잔고 690억 원 확보(2018년 매출액 648억 원 상회)
- 고객사 다변화: 글로벌 1, 2위 풍력 발전기 업체 베스타스/지멘스가메사 신규 확보
 - 지멘스가메사: 2019년 초 초도품 승인 및 공동 개발, 2020년 본격 납품 예정
 - 베스타스: 2020년 상반기 품질인증 및 2021년 본격 납품 예상
-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단계적 투자로 글로벌 대응 능력 향상+해상풍력 시장 진출

구분	2016	2017	2018	2019. 1H
매출액	45,277	50,364	64,762	47,070
영업이익	6,575	5,406	3,377	4,888
당기순이익	9,617	3,232	2,339	3,459

주: K-IFRS 기준

단위 : 백만 원

1.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씨에스베어링,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No.1 풍력 베어링 기업으로 도약!

- ▶ 미국 GE에 인정받은 기술력과 풍력 베어링 전문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
- ▶ 2019년 상반기 매출액 471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 베스타스, 지멘스가메사 등 고객사 다변화하고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것

[2019-11-05] “풍력 산업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입니다. 글로벌 Top 터빈 업체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베트남 생산기지를 구축해 세계적인 풍력 베어링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글로벌 풍력 베어링 전문 기업 씨에스베어링(대표이사 조만제, 방성훈) 방성훈 대표이사는 5일 여의도에서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혔다.

2007년 설립된 씨에스베어링은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인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을 전문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두 베어링 모두 직경 2.5m 이상의 초대형 제품이자, 강한 바람 압력과 큰 하중을 견뎌야 해 제조 난이도가 높다.

씨에스베어링은 GE에 인정받는 기술력을 통해 풍력 베어링 시장 강자로 떠올랐다. GE는 베스타스, 지멘스가메사, 골드윈드와 함께 손꼽히는 글로벌 풍력 발전기 업체로, 씨에스베어링은 GE의 핵심 파트너로서 풍력 발전기 설계 단계부터 제품을 공동 개발한다. 공급 물량 역시 꾸준히 확대돼 GE 전체 수요의 40%에 달하는 물량을 납품 중이다.

풍력 베어링 전문 생산체제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 역시 강점이다. ▲모회사 씨에스윈드의 생산성 혁신 프로젝트 도입 ▲실시간 공정단위 생산관리 시스템 실행 ▲7일 24시간 가동체제 전환 등 대대적인 생산성 혁신 활동을 통해 풍력 베어링 전문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최적의 생산 조건에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배경이자, 유럽 업체 대비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인이 됐다.

고도의 기술력과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은 꾸준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씨에스베어링은 2018년 매출액 648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만 매출액 471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을 달성해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상장 후 장밋빛 시장 전망 속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풍력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풍력 발전단가 하락으로 신규 발전기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화 풍력 발전기 부품을 교체하는 리파워링 시장이 개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이 고속성장해 2050년 전세계 풍력 발전 비중은 현재의 10배 수준인 36%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씨에스베어링은 고객사 다변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주축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기존 핵심

고객사인 GE에서 베스타스, 지멘스가메사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사를 확대한다. 실제로 2019년 초 지멘스가메사의 초도품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지멘스가메사에, 2021년 상반기 베스타스에 본격 납품을 예정하고 있다. 두 기업이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선도 업체임을 감안할 때 벤더 진입 후 매출이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해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올해 초 한국 기지의 2.5배에 달하는 베트남 부지를 확보, 1차 투자를 진행 중이며 2020년 2차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기지는 최근 급성장 중인 해상풍력용 베어링의 생산설비를 갖춰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할 거점으로 삼는다. 모회사 씨에스원드의 부지를 인수하고, 생산설비 개조 역량을 발휘해 작은 규모의 투자로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씨에스베어링 방성훈 대표이사는 “씨에스베어링은 지난 성장 이력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미래 에너지의 중심, 풍력 발전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No.1 풍력 베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씨에스베어링은 총 238만 주를 공모하며, 공모 밴드는 7,400원~8,400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176억 원 ~200억 원이다. 금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1월 11일~12일 양일간 청약을 받아 11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 자료문의 : 씨에스베어링☎ 여태승 팀장 (055-589-9112)

☎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70-5068-6321), 김물결 책임 (070-5068-6320)

<참고자료>

[씨에스베어링 주요 IPO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9년 10월 11일
수요예측	2019년 11월 4일 ~ 5일
청약	2019년 11월 11일 ~ 12일
코스닥 상장(예정)	2019년 11월 21일
공모주식수	2,380,000주
공모예정가	7,400원 ~ 8,400원
총 공모예정금액	176억 원 ~ 200억 원

2. 씨에스베어링 기업 소개

■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 피치·요 베어링 전문 기업

씨에스베어링은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인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을 전문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피치 베어링은 풍력 발전기의 날개인 블레이드를 지지하면서 회전시키고, 요 베어링은 풍력 발전기의 타워 부분과 상부 나셀을 연결하고 지지한다. 두 베어링 모두 직경 2.5m 이상의 초대형 제품이자, 강한 바람 압력과 큰 하중을 견뎌야 해 제조 난이도가 높다.

회사는 2007년 '삼현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2011년부터 풍력 발전기용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을 개발해 미국의 GE 등 주요 풍력 발전기 업체에 공급해왔다. 지난 2018년 세계 1위의 풍력타워 제조사 씨에스윈드의 계열사로 편입돼 사명을 '씨에스베어링'으로 변경했다. 현재 경남 함안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세계적 풍력 발전기 업체인 GE가 있으며, 지속적인 물량 확대를 통해 현재 GE 내 전체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글로벌 풍력 발전기 업체인 지멘스가메사, 국내 풍력 발전기 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풍력 발전기용 베어링을 공동 개발하고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다.

도표1. 주요 제품



주: 3MW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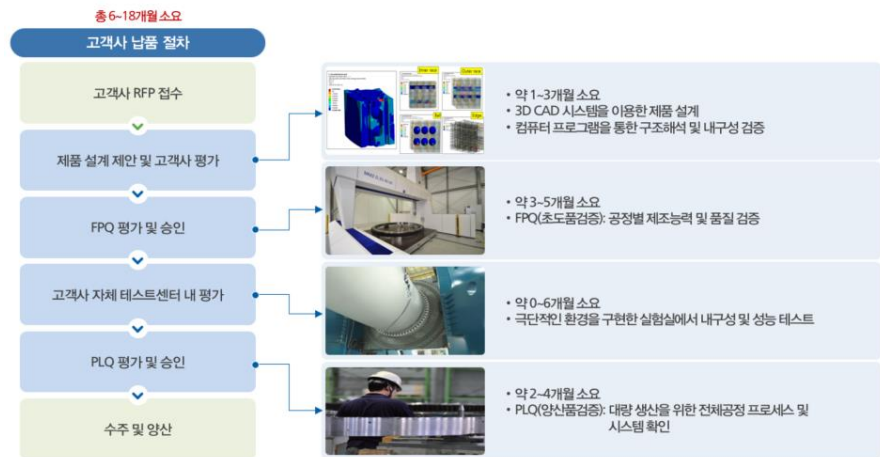
자료: 씨에스베어링, IRKUDOS

■ 독보적 기술력과 전문 생산체제 기반 품질·가격 경쟁력으로 지속 성장

풍력 발전기는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인 거대 구조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 역시 각각 직경 2.5m 이상, 무게 3톤 이상의 대형 중량물이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가공과 수십 년을 견딜 내구성이 필수로 엄격한 업체 선별과 제품 검증을 요한다.

씨에스베어링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보수적인 풍력 베어링 시장의 총 아로 부상했다. 특히 초대형·초정밀 베어링을 설계·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주효했다. 풍력 베어링은 납품 전 제품 설계 제안 및 고객사 평가, FPQ(초도품검증), PLQ(양산품검증) 등 수 차례의 인증을 거치는데, GE와 풍력 발전기 설계 단계부터 제품 개발을 협의하는 풍력 베어링 업체는 세계적으로 씨에스베어링을 비롯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도표2. 풍력 베어링 개발 및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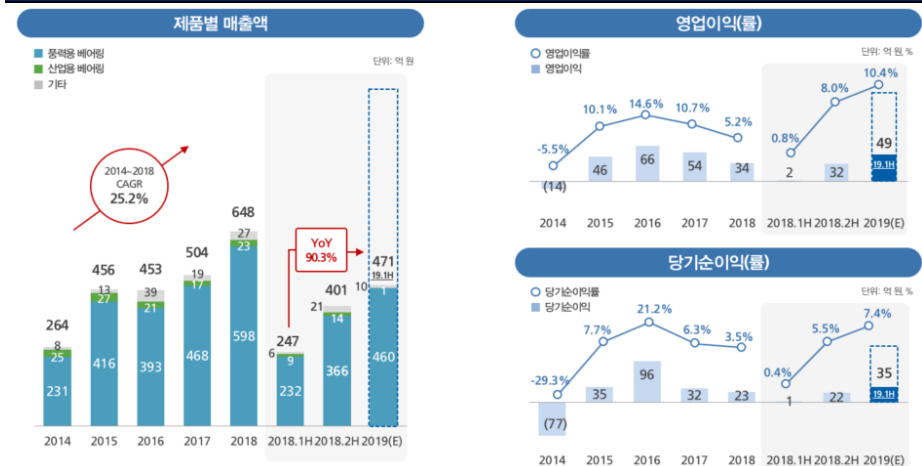


자료: 씨에스베어링, IRKUDOS

또한 ▲모회사 씨에스윈드의 생산성 혁신 프로젝트 도입 ▲실시간 공정단위 생산관리 시스템 실행 ▲즉각적인 설비 투자 ▲7일 24시간 가동체제 전환 등 대대적인 생산성 혁신 활동을 통해 풍력 베어링 전문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기준 주당 베어링 생산량은 150개로 2017년 80개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최적의 생산 조건에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스템이자, 유럽 업체 대비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인이 됐다.

고도의 기술력과 풍력 베어링 전문 생산체제는 고객사 물량 지속 확대로 이어졌다. 여기에 소품종 대량생산 등 전략적 수주활동이 더해지며 씨에스베어링은 글로벌 주요 풍력 베어링 업체로 올라섰다. 꾸준한 성장 끝에 2018년 매출액 648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만 매출액 471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을 달성해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도표3. 경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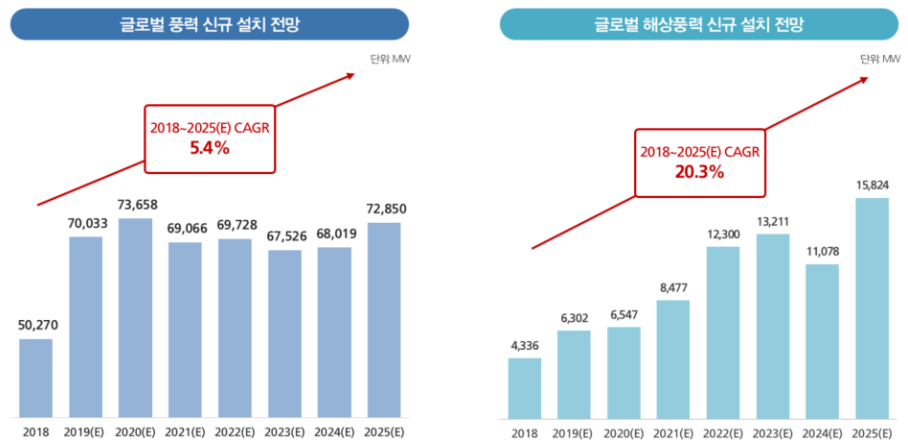
주: K-IFRS 기준

자료: 씨에스베어링, IRKUDOS

■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및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해 글로벌 리더 도약

글로벌 풍력 발전 시장의 확대가 씨에스베어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가 확산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풍력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는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량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노후화 풍력 발전기 교체 시장인 풍력 리파워링 시장이 개화해, 2050년 전세계 풍력 발전 비중은 현재의 10배 수준인 36%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표4. 글로벌 풍력 발전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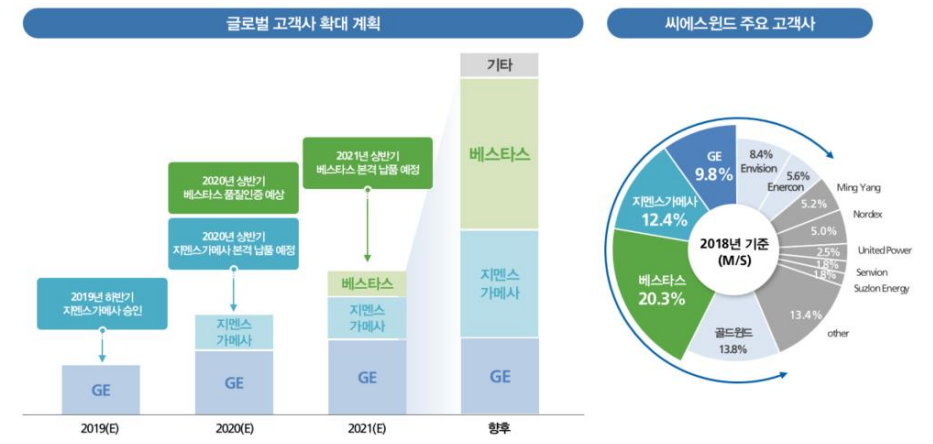
자료: Wood Mackenzie_2019, 씨에스베어링, IRKUDOS

씨에스베어링은 2019년 9월 말 기준, 2018년 매출액 647억 원을 상회하는 수주잔고 690억 원을 확보해 안정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고객사 다변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주축으로 고속 성장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핵심 고객사인 GE에서 베스타스, 지멘스가메사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사를 적극 확대한다. 모회사 씨에스윈드의 세계적 위상과 브랜드가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싣고 있다. 씨에스윈드는 글로벌 풍력타워 No.1 기업으로, 베스타스, 지멘스가메사, 골드윈드 등 글로벌 Top7 풍력 발전기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씨에스베어링은 2019년 초 지멘스가메사의 초도품 승인을 받아 새로운 모델을 공동 개발 중으로, 2020년 상반기 본격 납품을 예정하고 있다. 또 베스타스는 2020년 품질인증을 거쳐 2021년 상반기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다. 두 기업이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선도 업체임을 감안할 때, 벤더 진입 후 매출 불륨이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도표5.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계획 단위: %



자료: ePowerBay, 씨에스베어링, IRKUDOS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해 생산능력도 강화한다. 올해 초 한국 기지의 2.5배에 달하는 베트남 부지를 확보해 1차 투자를 진행 중이다. 2020년 1차 투자를 마무리해 양산을 시작하고, 연내 2차 투자를 추진해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완공 시 한국 공장의 생산능력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 기지는 최근 급성장 중인 해상풍력용 베어링의 생산 설비를 갖춰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할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모회사 씨에스윈드의 부지를 인수하고, 생산설비 개조 역량을 발휘해 작은 규모의 투자로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미래 에너지의 중심 풍력 발전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씨에스베어링은 글로벌 No.1 풍력 베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도표6. VISION



자료: 씨에스베어링, IRKUDOS

3. Appendix

■ 회사 개요

설립일	2007년 11월
자본금	3,980백만 원
임직원수	123명
사업 분야	풍력 베어링 제조업
본사 주소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돌길 37
홈페이지	www.cs-bearing.co.kr

주: 2019년 10월 11일 증권신고서 기준

■ 주요 연혁

시기	내용
2007. 11	씨에스베어링 설립(구 삼현엔지니어링)
2009. 07	본사 공장 구축 완료
2011. 05	GE 1.5MW급 요, 피치 베어링 FPQ 승인 및 초도 수주
2012. 04	2.5MW급 피치 베어링 국산화 과제 성공(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13. 10	GE 2MW급 요, 피치 베어링 개발
2014. 04	5MW급 피치 베어링 국산화 과제 성공
2016. 01	지멘스 3MW급 요 베어링 PLQ 승인 및 초도 수주
2017. 01	GE 신규개발품 AUDIT 승인(3MW급 고강성 피치 베어링)
2018. 02	씨에스윈드 관계사 편입
2018. 03	사명 변경(삼현엔지니어링→씨에스베어링)
2018. 09	두산중공업 3MW급(육상)/5.5MW급(해상) 승인 및 초도 수주
2019. 05	지멘스가메사 2MW급 요 베어링 FPQ 승인 및 초도 수주
2019. 10	지멘스가메사 4MW급 피치 베어링 FPQ 승인(진행중)

■ IPO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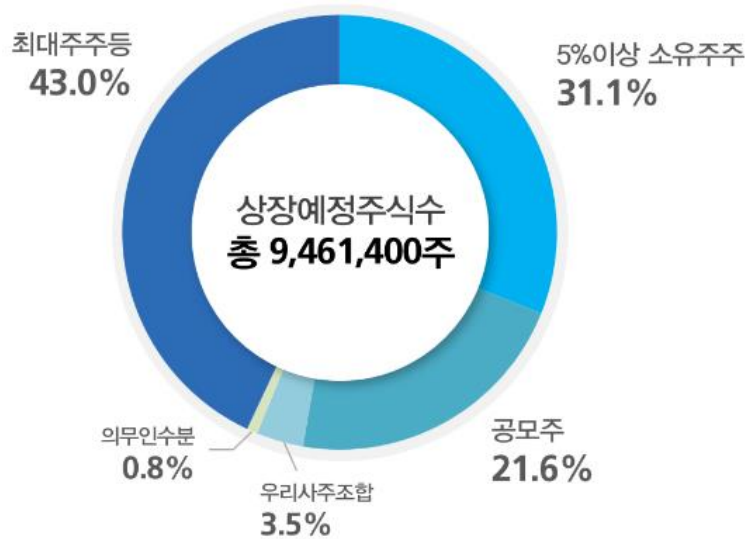
(1) 공모 개요

공모주식수	2,380,000주
공모예정가	7,400원~8,400원
액면가	500원
총 공모예정금액	176억 원~200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9,461,400주
상장주관사	한국투자증권

(2) 공모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9년 10월 11일
수요예측	2019년 11월 4일~5일
청약	2019년 11월 11일~12일
상장(예정)	2019년 11월 21일

(3) 공모 후 주주구성 및 매도금지물량



구분	주식수(주)	비중(%)	비고
최대주주등	4,063,948	43.0	상장일로부터 6개월
EastBridge Asian Mid-market opportunity Fund, L.P.	2,446,052	25.9	상장일로부터 3개월
우리사주조합	334,000	3.5	상장일로부터 1년
의무인수분	71,400	0.8	상장일로부터 3개월
총계	6,915,400	73.2	-

■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1H
유동자산	16,368	16,353	26,523	31,725
비유동자산	34,820	33,901	34,610	38,027
자산총계	54,188	50,254	61,133	69,752
유동부채	36,198	25,348	30,259	35,349
비유동부채	3,389	3,187	3,163	3,225
부채총계	39,587	28,535	33,422	38,574
자본금	3,045	3,420	3,980	3,980
자본잉여금	27,274	30,694	34,050	34,050
자본조정	(6,020)	(6,020)	(6,020)	(6,0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2)	(83)	(346)	(341)
결손금	(9,525)	(6,293)	(3,954)	(495)
자본총계	14,601	21,719	27,711	31,178

주: K-IFRS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1H
매출액	45,277	50,364	64,762	47,070
매출원가	34,737	40,742	56,385	39,301
매출총이익	10,540	9,623	8,377	7,769
판매비와관리비	3,965	4,217	5,000	2,881
영업이익	6,575	5,406	3,377	4,888
영업외수익	1,270	1,083	818	613
영업외비용	1,963	2,208	1,367	1,098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5,883	4,281	2,828	4,403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3,734)	1,049	488	944
당기순이익	9,617	3,232	2,339	3,459

주: K-IFRS 기준